

2022. 12. 6(화) 10:00

- 제23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 시 정 질 문



논산시의회 의원 서 승 필

사랑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서승필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라는 비전을 갖고 시민 행복 시대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백성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1946년 개교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하였고,  
미래전장을 주도하고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정예장교 양성,  
군 리더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품성을 갖춘  
정예장교 양성,  
전투형 강군을 선도하는 군사전문가를 양성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군사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육군사관학교는 부지가 협소  
하고, 도심 아파트에 둘러싸여 기밀훈련이  
불가할 뿐 아니라, 소음 발생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훈련시설 노후와 공간의 부족으로  
정에 장교양성 교육여건이 열악한 현실 속에  
정부의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발표로 태릉  
골프장 택지개발 검토와 맞물려 육군사관  
학교 이전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당시의 여론과 상황을 파악하고,  
지난 민선7기에서는 충청남도와 논산시가  
함께하는 육군사관학교 유치추진위원회를  
2021년 4월 14일 출범시키고, 2021년 11  
월과 2022년 2월, 육사 논산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및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 주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대통령 공약사항과  
충남도지사의 공약사항에 육군사관학교의  
논산이전이 포함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인  
“「충청남도 7대 공약 및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육군사관학교 충남이전을 약속하였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  
위원회는 충남 지역공약으로 논산을 ‘미래  
지향형 국방도시’로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포함한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논산시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국방 특성화 지역으로 국방대학교와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인근 제룡시에는 3군 본부와 국방부  
제룡대 근무지원단, 공군기상단 등이 위치해  
있고, 대전까지 확장하면 육군대학, 국방과학  
연구소 등 기관과도 연계되는 곳입니다.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육군사관학교 논산 유치의 타당성과 당위성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은 국방 전투력의 극대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자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8기 들어 지난 10월 5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육사 이전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민간 주도의 위원회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지난 10월 21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육사를 옮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국방부장관 등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을 중심으로 육사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반대 여론의 결과는 11월 1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육군사관학교의 충남 유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찬반 양측의 충돌로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파행하는 사태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당면하고 있는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육사 이전 공약이 물거품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논산시는 방위사업청 유치 실패와 충청남도남부출장소 유치공모에서의 탈락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라면 대통령이 공약하고 충청남도의 민간 위원회가

적극 추진한다 하더라도 육군사관학교 논산  
유치는 다시 한 번 쓰디쓴 패배의 잔을 마실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위한 시장님과  
논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지역적·물리적 이동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국방력·지역경쟁력·역사적 의미  
등 내재적 가치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담아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해안이 나오길 기대  
합니다.

존경하는 백성현 시장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논산은 2017년 국방대학교 이전을 성공시킨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지역발전위에서 충남 논산 이전을 결정한 이후 군 관계자 등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투쟁으로 우여곡절 끝에 논산이전을 완성시켰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논산으로 이전된다면, 국가국방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려 논산 지역 경제의 활성화 시너지효과 발생과, 지방인구 소멸도시인 논산에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 사회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국방 교육도시와 국방 산업도시로써 위상은 제고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논산시가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백성현 시장님과

논산시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하고 특히, 시장님께서 최일선에서 ‘선봉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논산시의회도 시장님의 육군사관학교  
유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논산시가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통해 국방 교육도시와 국방 산업도시로 성장  
발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논산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12. 6.

논산시의회 의원 서 승 필